

코로나19 확산에 판문점 견학 15일부터 다시 전면중단

송고시간 | 2020-12-13 10:31



정빛나 기자

| 재개 불과 한달여만에..."방역 상황 호전되면 견학 재개"



판문각 방문한 시범견학단

(서울=연합뉴스) 지난달 4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시범견학단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(T2) 건물 등을 둘러보고 있다. 2020.11.04 [사진공동취재단] photo@yna.co.kr

(서울=연합뉴스) 정빛나 기자 =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급속 확산으로 판문점 견학이 다시 중단된다.

통일부는 13일 "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판문점 견학을 다음주(15일)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"며 "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쳤다"고 밝혔다.

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여파와 올 초 코로나19 상황으로 계속 중단됐다가 1년여만인 지난달 4일 어렵게 재개됐지만, 불과 한 달 여 만에 다시 중단되는 것이다.

앞서 통일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던 지난달 24일만 해도 판문점 견학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3단계 격상 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.

그러나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.5단계로 격상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내부적으로 견학 중단 등 견학 운영 방식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.

재개 시점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.

통일부는 "견학을 신청해 기다리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향후 방역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견학을 재개하도록 하겠다"고 설명했다.

shine@yna.co.kr

확진자 1천명 넘었다...3단계 되면 미장원도 문 닫...



유튜브로 보기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0/12/13 10:31 송고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

Copyright (C) Yonhapnews. All rights reserved.